

0819(금) 예레미야 46-48장 나와 같은 자 누구냐?

46-51장에는 <이방나라들>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

하나님은 이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?

망국과 포로기,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계속될 것입니다(51:46).

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.

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.

이방 나라와 그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.

하나님은 열강을 도구로 삼아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.

(46:10,25, 48:10, 49:19-20,34-35,37)

이집트와 맞붙어 승자가 된 바벨론은 패권자로 군림합니다.

이미 예언된 바, 이집트는 더욱 쇠할 것입니다(46:13-26, 44장 참고).

블레셋, 모압, 암몬, 에돔 등도 정하신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.

지금껏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 그대로를

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(47:1, 48:8,25,40, 49:13).

열방은 힘과 위세, 풍요와 재물을 의뢰하고

마치 자신이 천하를 통치하는 하나님인양 교만했습니다.

참 통치자인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 진노하시며,

열방이나 그분의 백성이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.

(48:14,17,26-27,29,42, 49:4)

“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룰 자 누구며(49:19)”

하나님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에게

상황을 바로 해석하는 <믿음>의 눈을 요청하고 계십니다.

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, 한 분 <하나님>이십니다(46:18, 48:15, 49:19).

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(46:27-28, 50:4).

나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까?

❶ 알 수 없는 미래와 혼란한 상황들에 길을 잃고 있습니까?

❷ 한 분 하나님께서 참 심판자요,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46-48장